신규 공연에 방점…'제작극장' 실험 성공하나

CULTURE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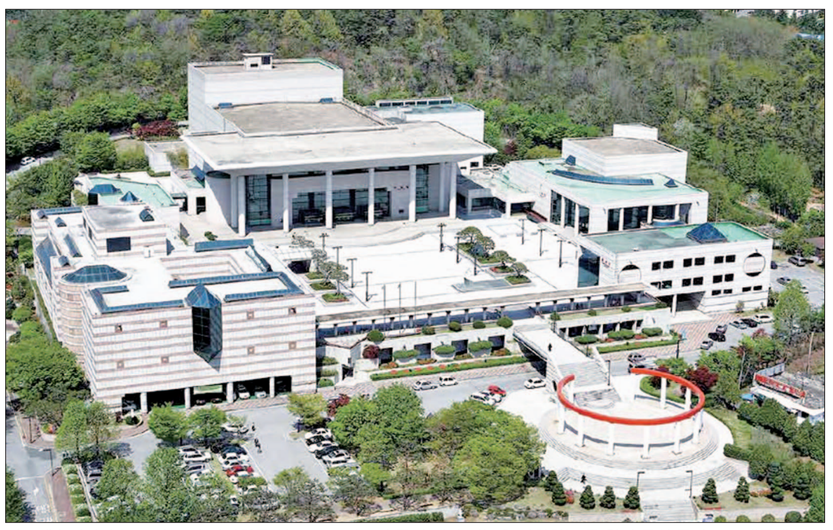
광주예술의전당, 창작 중심 극장 탈바꿈 시도
가칭 '…관현악단' 창단, 협업 공연 20회 수행
올해 11월 오디션 통해 50명 내외로 선발 예정

"공적인 오케스트라가 하나 더 탄생할 수 있으며, 또 민간은 민간대로 열심히 해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생각했죠. 밖에 있는 민간오케스트라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두번 정기연주회를 하는 등 활동 횟수나 범위가 좁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오케스트라들이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를 확보해 가지고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어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최근 윤영문 전당장의 임기 2년 연임이 6월 1일자로 확정된 광주예술의전당은 11일 오전 2026년부터 공연 제작 기능을 강화한 창작 중심 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열고, 윤영문 전당장이 이 자리에서 '제작극장'으로 변모할 경우 민간 오케스트라와 충돌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광주예술의전당이 시도할 '제작극장'은 공연기획이나 제작, 연습, 상연 등 모든 과정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방식이다. 서울에서는 국립극장이나 국립극단, 남산예술센터 등이 전문 제작극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6년(가칭) '광주예술의전당 관현악단'을 창단을 목표로, 올해 11월 오디션을 통해 기본 2관 편성 기준 50여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전당 기획공연과 시립예술단(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등)과의 협업 공연을 연간 20회 이상 수행할 복안이다. 연습은 현재 신축 중인 예술의 전당 별관 내 대형 연습실에서 진행된다.



광주예술의전당은 11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2026년부터 공연 제작 기능을 강화하는 등 창작 중심 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제작극장'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은 광주예술의전당 전경.

제작극장 실현을 위한 연습은 옛 광주시립사진전시관과 옛 민예총 사무실이 소재했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연습실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 공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예산 17억원(시비)을 투입해 오는 12월초까지 공간을 완공한다는 복안이다. 11일 현재 공정률은 70%로 알려졌다. 제작극장을 드나드는 관람객을 포함해 예술의전당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옛 민예총 자리에 카페 공간도 구상되고 있다. 이미 카페 공간은 확보했으나 운영방식을 놓고 고심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 시립예술단체의 공연 제작 시 오케스트라 협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연습 시간 확보 및 공연 연계 등의 실질적 운영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다 시스템과 공간이 마무리되면 2026년부터 전체 공연의 절반 이상을 자체 기획 공연으로 제작하고, 지역 예술가의 직접 참여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영문 전당장은 "발전적으로 꽤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음악 현실에 비춰볼 때)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앞으로 해가면 광주 음악적인 면에서 예술이 분명히 발전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국악관현악단 창설은 기존 시립예술단과 협업이 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규 제작 공연에 방점이 있다.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퀄리티있는 공연을 했을 때 서로 경쟁구도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죽은 자 위한 진혼이자 남은 자 위한 위로

(사)청강창극단 가족극 '꽃가마 타고'
29일 오후 2시 장성문예회관 대공연장

(사)청강창극단(대표 박세연)의 레퍼토리 공연으로 마련된 가족극 '꽃가마 타고'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장성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죽은 자를 위한 진혼이자 남은 자를 위한 위로로 웃음과 눈물, 해학과 애잔함이 공존하는 이번 가족극은 꽃으로 단장된 상여가 움직이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꼭두들이 튀어나와 춤을 추며 한 여인의 생을 해학과 눈물로 풀어낸다. 비난받던 아들은 떠나는 어머니의 가슴에서 비로소 용서받고 이해를 받으며 눈물로 뒤늦은 진심을 고백한다.

특히 이번 가족극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한편,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로, 현재 사라져 버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장례문화를 할머니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꽃가마를 타고 가는 길이 두려운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꽃가마가 가는 길을 비춰주고 안내해주는 우리나라 전통나무인형 꼭두들과 우리들의 삶 및 죽음을 고민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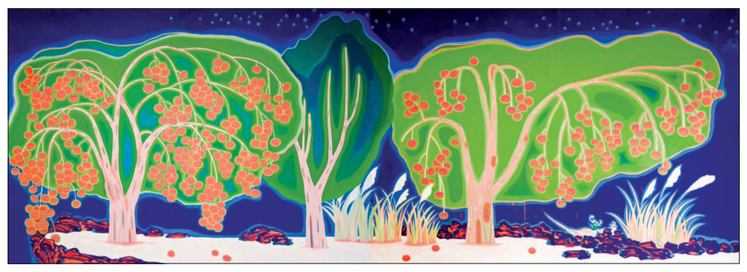
출연진으로는 어린 순이 역에 강은솔 어린이를 비롯해 이장 역에 김종대(청강창극단 이사), 할머니 역에 김안순(무형문화재 심청가 이수자), 아들 역에 소지원(전 전남도립국악단원), 찬이 역에 김운찬, 길라잡이 역에 조아라, 익살이 역에 김경민, 지킴이 역에 유윤하, 시종이 역에 김주은, 일직사자 역에 심다성씨 등이다.

예술감독은 박세연 대표가, 총괄기획은 맹성민 기획이사가, 작·연출은 김안순씨가, 안무는 김선영 교수(국제대 문화예술컨텐츠학과)가, 음악감독 및 작편곡은 신태주(2023 광주연극제 음악감독)씨가 각각 맡는다.

박세연 대표는 "오늘, 한 어머니가 꽃가마에 올라 긴 세월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 속을 썩이던 아들, 말 안 듣던 자식, 그 자식 걱정을 한 가슴 안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떠나는 길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고단한 인생, 하지만 그 안에는 참 많은 날들이 말하지 못한 사랑과 꾹꾹 삼킨 서러움이 있었다. 그 마지막 길을 이제 우리는 창극으로 연다. 그렇게 무대 위 한 편의 소리가 한 생의 굿이 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된다"고 전했다.

이번 무대는 2025 전남문화재단 공연장협력 예술단체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 예매는 장성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입장료는 3000원 전체관람가.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이선희 작 '오징빛이 가득한 굴밭'

화폭서 변화무쌍한 제주를 만나볼까

이선희 개인전 17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기획으로 마련된 이선희 작가(서양화)의 개인전이 지난 7일 개막,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출품작은 변화무쌍한 제주를 담은 시리즈 6점이며, 이와 함께 AR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영상을 공개한다.

'아무튼, 한라산부터 시작합니다'라는 타이틀로 제주 5년의 기록을 되돌아볼 이번 전시는 '제주의 자연,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형형색색의 그림으로 표현한 제주 연작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제주를 옛 그림 중 탐라순력도의 구성과 형광색 프레임에 화려한 색채를 사용해 익숙한 장소를 다르게 보는 시선으로 감상하게 한다. 작가의 작품에는 숨은 기호들이 있다. 사라지는 자연들, 사라진 사람들,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에 대한 이야기들이 문득 등장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Tilt Brush 프로그램을 활용, AR 증강현실영상을 통해 표현했다. 제작은 비주얼미디어아트를 전문으로 비주얼로켓원에서 맡았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양림동으로 휴가를 떠나듯 갤러리에서 휴식을 즐기며 다른 감각으로 도시에서 제주로 떠나는 순간여행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선희 작가는 조선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2024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이아의 레지던시작가로 활동했으며, 올해는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레지던시의 제주 교류프로그램 작가로 선정됐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